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대구 학술대회 영호남의병활동사에서 충의공 권응수 장군 등 조명



▲ 이욱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종합토론에서 한명기 명지대 교수가 질의하고 있다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2011년도 제1차 학술대회가 2011년 6월 1일 13시 대구시 대봉동 소재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동선양회의 학술대회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열리게 되어 있다. 6월 1일은 또 정부가 제정한 '의병의 날'로서 금년이 제1차년도가 되며, 임진란

당시 초기에 의병을 일으킨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의 창 의지가 경남 의령인 관계로 이날 오전 의령에서 별도의 기념행사가 있었고, 의령에서 가까운 물론 그보다 앞서 임란 최초의 창의 전승을 한 충의공忠毅公 권응수權應銖 장군의 영천 지역 및 의병의 다발 창 의지 안동 지역과도 가까운 대구에서 의병활동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이었다. 대회의 주제는 '영호남지역 임진란 의병활동의 역사적 재조명'이었다.

이날 청중은 대구시교육청 대강당 4백여 좌석을 메우고 넘쳐 6백여 명에 이르는 성황이었다. 주로 임란에 유공한 호국의 선현선열 후손들로서 서울·아산·청주·안동·광주 등지에서 모여 온 것인데 특히 광주에서는 충렬公忠烈公 고경명高敬命 의병장의 후손이 3대의 전세버스 편을 내 참석해오고 있었다.

학술대회에 앞서 선양회의 임시총회가 열렸다. 박권흠朴權欽 회장이 신환으로 입원하여 참석 못함에 따라 유한성柳漢晟 수석부회장이 주재하였다. 안건은 단체회원 신규 가입 상황 보고와 기부모금 및 활용 상황 홍보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의 건이었다. 단체 회원 신규 가입 상황은 기존의 23개 유공 선현선열 후손후원회 외에 금역당琴易堂 배용길裴龍吉에서 문강공文康公

서사원徐思遠까지 10개 후원회가 더 가입하여 총 33개 단체로 된 내용이었다. 박권흠 회장을 대리해 유한성 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우동기禹東淇 대구시교육감의 축사가 있는 다음 유한성 부회장의 사회로 학술대회의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주제 1은 순천대 조원래趙源來 교수의 '임란 의병운동의 성격과 호남의병의 특성'으로서 이를 '①머리말 ②의병봉기의 배경, 임란의병의 유형 ③호남지방의 전략적 위치와 호남의병의 특성 ④맺음말'로 나누어 발표하였는데, 특히 ③장의 3)절 '전라좌수군과 결합된 해상 의병의 활약'에서 '해상의 병'이라는 신개념어의 정의에 중점을 두어 주목을 받았다.

주제 2는 한국국학진흥원 이욱李旭 연구위원의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의병활동과 성격'으로 '①머리말 ②경상좌도 의병의 활동양상 ③의병장의 구성과 관군과의 관계 ④맺음말'로 나누어 발표했다. 그 ②장의 1)절 '전쟁초기의 향토방위 활동'과 2)절 '일본군 주요 주둔지와 음성 공략' 및 ③장의 2)절 '관군 지휘부와 의병장의 관계'에서 충의공 권응수 장군의 사적과 활동 상황이 조명되었다. 그밖에 임란 당시 경상좌도의 안동권씨인 의병장으로는 의성에서 가장假將으로 임명된 훈원권씨訓練院權知 권희순權希舜, 예안의 신급제



▲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의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新及第 권전權詮, 안동향병지휘부의 척후장斥候將 권극인權克仁, 전향典範 권행가權行可, 장서掌書 권강權b·권득가權得可 등이 거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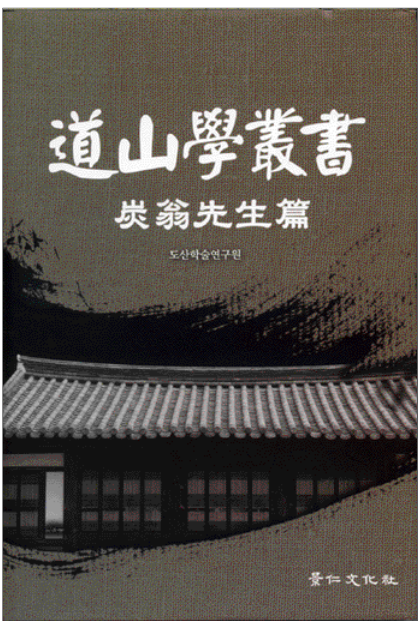
주제 3은 임진왜란사연구회 연구위원인 동서대 김강식金康植 교수의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운동'으로 이를 '①머리말 ②경상우도의 전향과 위치 ③경상우도의 의병기반과 조직 ④경상우도 의병의 변화'로 나누어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안동권씨 유공 인물로서 당시 창의倡義 활동한 상주의 판관 권길權吉, 의령의 권란權鸞, 합천의 권양權養, 단성丹城의 권세춘權世春·권재權濟·권위權緯, 창원의 권탁영權擢英, 개령開寧의 권응성權應星, 함창의 권경호權景虎, 예천의 권옥權旭 의병장 등이 산발적으로 거명되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다음에는 발표자 3인과 고려대 이현장,

명지대 한명기韓明基 교수, 이상훈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기조실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여 수석부회장 유한성 고려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1시간여에 걸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질의에서 한명기 교수는, 임란 50년 전 '1543년에 조총을 도입한 일본은 임란시 세계 최강의 육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게 서양 사학자들의 평가인데, 이같은 강군 18만을 동원한 일본에 비해 조선의 상비군은 3만5천 내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관군의 열세를 극복하고 결국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기여한 의병활동에 대한 총괄적이고도 구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지적을 하였다. 종합토론의 말미에 할애된 청중과의 질의응답에서는 임란선현의 후손 가운데 자기 선대를 발굴연구 주제의 대상으로 해줄 것을 주장하는 듯한 발언도 있었다.

<사진·글 권五燕>

‘도산학총서’ 탄옹선생편 발간 대전 도산道山서원의 도산학술연구원



만회晩悔·탄옹炭翁 부자 양 선생을 봉향하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소재 도산서원道山書院 부설의 도산학술연구원에서는 2010년도 동연구원의 목적사업으로 이론 '도산학총서道山學叢書' 탄옹선생편炭翁先生篇을 발간하였다. A5신판 330면 양

장, 2011년 3월 30일 서울 경인문화사(02-718-4831) 발행이다.

추밀공과 정헌공계 시조후 23세인 만회 권득기權得己 선생은 선조 3년, 1570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20세에 진사가 되어 제릉참봉齊陵參奉에 음보되고 의금부 도사를 거쳐 1611년에 사과司果로서 식년문과에 장원하였다. 예조좌랑으로 있을 때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출하려는 의논이 일자 기관하고 걸어서 도성을 나가 태안泰安의 해곡海曲에 은둔하여 박학궁리博學窮

理에 몰두하며 거듭 벼슬로 불려도 나가지 않았다. 격심한 당론黨論에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일관하면서 '매사필구시每事必求是' 무락제이의無落第二義: 매사에서 모름지기 옳음을 구하고, 으뜸이 아닌 차선의 대의에 빠지지 말라' 하

는 십자훈十字訓을 남기고 광해군 14년, 1622년 9월에 53세로 졸하였다. '만회집晩悔集' 5권과 '독서참의讀書懣疑' 5권을 남겼고 이조 참판과 양관제학兩館提學으로 추증되었다.

이러한 만회공의 5남인 탄옹 권시權의 선생은 선조 37년, 1604년에 서울에서 출생하여 잠야潛治 박지계朴知誠의 문인으로 소시부터 안자顔子에 비유되며 충명과 지행志行으로 드러났다. 30세에 유일遺逸로 추천되어 대군사부大郡師傅가 되고 세자시강원 자의諮議가 되었다. 좌랑·경상도 도사·시강원 진선·장령掌令·집의·승지 등을 거쳐 한성부 우윤에 이르렀다.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로 예론이 크게 일었을 때 시의時議에 불합하여 퇴귀하고는 장재張載의 서명西銘을 위주로 덕행과 경술로써 일세의 사범이 되었다. 공주, 지금의 대전 탄방리炭坊里에 복거하며 호를 탄옹으로 하여 학술에 침잠하니 당시 회덕 지역에 거유이던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동춘당同春堂 송준길宋浚吉·초려草廬 이유태李

惟泰 등과 나란히 명성이 높았다. 현종 13년, 1672년 정월에 67세로 졸하여 좌참찬에 추증되고 탄옹집 7권을 남겼으며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신도 비문을 짓고 공산보公山譜를 편찬하였다.

총서의 발간사에서 권태원權兌遠 학술원장은 '조선시대 지방 학술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본 도산서원의 뜻을 받들어 1992년 도산학술연구원이 창립되었고, 이어 국내외 학계 석학 교수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어 도산학보가 창간되었으며, 제6집부터 정부 공인의 학술지로 승격되고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어 왔다. 이에 금번 도산학보 논집에 실린 옥고를 바탕으로 본 도산서원에 제향이 되고 있는 만회 권득기 선생과 탄옹 권시 선생을 중심으로 이분들의 뜻을 이어오신 유회당有懷堂 권이진權以鎭 선생 등의 학덕과 사상에 관한 논고를 모아 각기 연구 단행본으로 출간을 하게 된 것'이라 하고 있다.

6부로 나뉜 책의 내용은 제1부가 도학道學(역사적 위상)으

로서 충남대 김길환金吉煥 전 교수의 논문 '탄옹 권시선생의 학문과 사상', 경희대 김태영金泰永 명예교수의 '17세기 사림정치와 탄옹 선생의 위상', 대전대 송인창宋寅昌 교수의 '탄옹과 동춘당 도의사상의 비교연구'가 실렸다. 제2부 철학(경학經學)에는 공주대 권정안權正顔 교수의 '탄옹 권시의 유학사상', 인하대 이봉규李俸珪 교수의 '탄옹 권시의 철학적 입장과 사상사적 의미들'이 실리고, 제3부 예학禮學에는 성결대 강경훈姜景勳 교수의 '탄옹 권시의 대중소사해식大中小士楷式'이 실렸다. 제4부 문학에는 서울대 이종묵李鍾默 교수의 '탄옹 권시의 삶과 시', 제5부 경제에는 이태진李泰鎭 국사편찬위원장의 '탄옹 권시 선생의 양민론養民論'이 실렸다. 마지막 6부 가계家系에는 충남대 최근목崔權默 명예교수의 '탄옹 권시의 공주 입향과 그 후에 와 서천교육청 김영현金永炫 장학사의 '탄옹 권시의 가계와 생애'가 실렸다.